



민선 7기 들어 전남 동부권이 '신(新)해양·관광·환경 수도'로 도약하며 급부상하고 있다. 2018년 김영록 전남지사 취임 이후 각종 국제행사 유치, 관광 활성화, 대형 SOC 국가계획 확정, 친환경·첨단산업 육성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은 지난날 27일 여수에서 열린 2026여수세계수목박람회 국제행사 승인 환영대회 모습. <전남도 제공>

전남 동부권 '新해양·관광·환경 수도' 도약

전남 동부권이 '신(新)해양·관광·환경 수도'로 도약하고 있다.

민선 7기 김영록 전남지사 취임 이후 3년여 동안 동부권을 중심으로 한 국제 행사 유치, 관광 활성화, 대형 SOC 확정, 친환경·첨단산업 육성 등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미래 발전 기반을 확고히 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성과는 오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한 현안 해결 의지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낸 정·관계 네트워크 등 김 지사의 정치력·리더십이 맞물린 결과물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며 향후 동부권 발전 쪽에 관심이 모아진다.

◇섬·정원박람회 국제행사 주목
2026여수세계수목박람회와 2023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주목받고 있다.

2026여수세계수목박람회는 지난 8월9일 국제행사로 확정됐다. 박람회는 2026년 7월17일부터 8월16일까지 한 달 간 여수 돌산진모지구 일원에서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열린다. 30개국 200만명 이상이 여수를 방문할 예정이다며 6천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과 4천억원 이상의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도 지난달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성공 개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원에 삽니다'라는 주제로 2023년 4월부터 6개월간 순천만정원과 동천을 중심으로 열린다. 2만5천여개의 일자리 창출, 1조6천억원의 경제 유발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전방위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개최까지 확정될 경우 국제행사 개최를 통한 동부권 발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남해안·지리산·섬진강 영호남 협력
전남 동부권은 지리산·섬진강 등 생



광양 현대스틸산업 방문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3일 오후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을 제작·생산하고 있는 광양 울촌산단 내 현대스틸산업을 방문, 김오수 공장장 안내로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전남도 제공>

국제행사 유치·관광·SOC·첨단산업 등 육성 두각 김지사 현안 해결 의지·정치력·리더십 성과 견인

태자원과 남해안 섬·갯벌, 해양경관 등 생태·관광·문화자원의 보고다.

올해 7월26일 순천·보성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되면서 전남 갯벌의 가치는 국제적 인정을 받았다. 전남도는 다도해습지정원, 갯벌 통합관리센터 등 유치를 발 빠르게 준비해 갯벌 보존·활용에 앞장선다는 구상이다.

특히 지난 3월 전남 미술의 세계화를 선도하는 전남도립미술관도 문을 열었다.

전남도는 지리산을 '영호남 도시내륙 관광벨트'로 조성해 지리산 터널, 케이블카, 제2남도대교 등 영호남 광역관광 SOC를 구축할 계획이다. 섬진강은 복합휴양형 숙박단지과 이색 테마파크 등이 포함된 섬진강권 복합휴양관광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정부의 남부권 개발 사업 구상에 ▲여수·고흥 이순신 호국관광벨트 조성 ▲

광양 섬진강 리버크루즈 해상루트 개발 ▲고흥·보성 남해안 명품 테마섬 조성 ▲광양·곡성·구례 섬진강변 관광테마로드 조성 ▲구례 청정 생태휴양벨트 조성 등 동부권 핵심 관광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다.

동부권통합청사도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는 열린 청사로 만들어 미술작품 전시, 공연 등 동부권 공동체의 중심이자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여수·남해 해저터널 등 SOC 성과
SOC 분야 역시 괄목 성과를 거두고 있다. 대형 SOC가 국가계획에 속속 반영돼 동부권을 남해안 남중권 거점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여수·남해 해저터널(총사업비 6천824억원)은 지난 8월24일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했다. 사업 추진 23년 만

의 일이다. 해저터널이 건설되면 기존 1시간 30분 소요되던 여수·남해 구간을 10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무늬만 고속철' 오명을 받아온 전라선 고속전철은 지난 6월 국가계획에 반영됐다. 서울-여수를 38분 단축된 2시간 7분대에 오갈 수 있게 된다.

여수와 고흥을 4개 해상교량으로 연결하는 백리섬섬길이 개통했고 균형발전 전 여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곡성 석곡IC-겸면 국도 위험구간(1천460억원)은 설계 중이다. 여수 화대-백야 연도교(5천269억원)은 오는 10월 착공한다.

◇미래 신산업 생태계 조성 '착착'
전남 동부권 산업 생태계도 급변하고 있다. 전통 주력산업인 화학·철강 산업이 고도화되고 이차전지, 우주발사체 등 미래 신산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

국내 최대 화학·철강 생산기지인 광양만권 산업단지가 50년 만에 친환경·ICT 지능형 미래산업으로 대개조를 진행하고 있다. 2024년까지 1조1천364억원이 투자돼 여수국가산단은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광양국가산단은 '스타트업 기업 육성 거점'으로, 울촌산단은 '정밀화학, 금속 소재부품 등 고부가 신산업 중심지'로 거듭난다.

광양만권은 양극재와 리튬 등을 대량 생산하는 국내 최대 이차전지 소재부품 공급기지로 육성된다. 고흥군의 경우 나로우주센터와 연계해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여수세계수목박람회와 순천만정원박람회를 성공 개최해 전남 동부권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만들 것"이라며 "COP28 남해안 남중권 유치에 최선을 다해 동부권을 대한민국 신해양·관광·환경 수도로 자리매김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정기자

'명량대첩축제' 온라인축제 새 모델 제시

코로나시대 지속가능 호국역사문화축제 성황리 폐막

유튜브 공식 채널인 '명량대첩축제TV' 중계로 열린 2021 명량대첩축제가 다양한 랜선 프로그램의 높은 만족도와 조회수를 기록, 코로나 시대 온라인축제의 새 모델을 제시하며 5일 성황리에 폐막했다.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한 이번 축제는 평소 접해볼 수 없는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 명량대첩의 정체성과 축제의 가치를 잘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명량해전의 정신을 이어가는 수군의 후에 해군과 해경이 연합한 해상퍼레이드는 대한민국 바다의 든든한 수문장 모습을 확인하는 행사였다.

특히 명량해전 영상과 동시에 울돌목 상공에서 펼쳐진 공군에어쇼 블랙이글스의 공연은 마치 해전 승전을 알리는 봉화처럼 하늘을 멋지게 수놓았다.

다양한 참여 방식으로 진행한 조선수군무예대회, 명량 퀴즈 열전, 청소년 가

요제, 틱톡 챌린지, 유튜브 콘테스트, 히오리 노래방 등은 축제의 재미를 느끼고 함께 공감하는 장으로 치러졌다.

또한 울돌목 은어 공개방송, 명량 랜선 투어, 남도민속여행, 이순신 가무악 등은 온라인 역사문화축제를 전국으로 한껏 알리는 기록제로서 역할을 톡톡히 했다.

지역 농수특산물들을 활용한 대박할인 라이브커머스는 남도의 먹거리를 알리고, 남도장터, 해남미소, 아리랑물 등 지역 소품들이 축제와 상생할 수 있다는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했다.

유미자 전남도 관광과장은 "처음 개최하는 온라인 축제의 만큼 부족한 점도 있었다"며 "코로나 시대와 더불어 상생하는 온라인 축제의 초석을 다진 만큼 앞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호국역사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도록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 임금체불 점검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6일부터 17일까지 민중대명절인 추석(21일)을 맞아 근로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막기 위해 임금체불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시철도본부에 따르면 오는 15일까지 2호선 1단계 건설사업 공사현장에 기성금 108억원을 지급한 뒤 테더건설(주) 등 7개 업체에 임금·장비대·자재대 등이 근로자들에게 신속 지급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한다.

또 기성금 지급 이후 휴대전화와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하도급 업체와 근로자

들에게 대금·임금 지급 여부를 직접 확인할 방침이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은 이날 현재까지 지역 전문건설업체 하도급율 71%, 지역인 고용률 73%, 지역자비 사용률 86%, 지역자재 사용률 68%를 차지하고 있다.

정대경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건설 공사가 지역 업체, 인력, 장비, 자재사용 비중이 높은 만큼 이번 추석을 대비한 임금체불 예방 점검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전남 노숙인 643명...코로나 장기화 위험 ↑

도의회, 자립지원 등 조례 추진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실직 등이 이어지면서 노숙 위험이 증가한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노숙인 등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5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한춘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말 기준 거리 노숙인 1천241명을 포함 전국의 노숙인은 9천470명이다. 이 중 전남은 643명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노숙인은 주로 요양시설이나 재활시설에서 생활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례안은 노숙 예방과 노숙인의 인권 보장, 사회복귀를 위한 자립지원 등을 담고 있다.

또 의료, 주거안정과 취업 지원 등 노숙인의 보호와 자립지원 외에도 노숙인 복지시설의 운영과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도 지원 사업에 포함됐다. 노숙인의 인권보장과 복지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과 직무교육도 담겼다.

한 의원은 "추석을 앞두고 노숙인 지원 조례를 발의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전남은 거리 노숙인은 찾기 어렵고 주로 시설에서 생활하고 계신 만큼 시설 내 노숙인의 인권보호와 사회복귀에 지원의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후성기자

울돌목 횡리 바다가 눈앞에 펼쳐진다

스카이워크(110m) 해상케이블카(960m) 2021. 9월 개통